

##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에 대한 관별분석

손정남\* 1>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 기준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며, 자살증가율은 1위에 이르는 정도로 높다(Ministry of Health Welfare, 2005). 특히 2005년 20대의 자살은 20-24세 10만 명당 내명, 25세-29세 10만 명당 19.4명으로 20대 사망원인의 1위로 보고된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다(한국의 통계청, 2006). 전청소년기,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는 자살의 위험시기로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Steinhausen & Winkler Metzke, 2004), 우리나라에서 대학생과 산문 성인초기의 대상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살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배제되어 왔다. 최근 20대의 유명인사의 자살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심지어는 베프테스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어 모방 자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 해 자살도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액이 3조 857억 원에 달하고, 우울증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연간 2조 153억 원에 이른다(Chung, Kim, & Nam, 2006). 또한 한 명의 자살자로 인해 6명의 자살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보고(Seo, 2003)를 감안할 때 자살은 개인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 진부적 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자살: 행동에 대한 연구는- 자살 안전장치 실패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점과 사후에 사적 와결자에 대한 심리적 부검을

신시해야 하지만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자살와결과 자살생각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Dubow(Seo, 2003에 인용됨)는 자살생각을 자살·시도나 사살로 이어지는 자살행위의 연속적 과정의 출발점으로 보았고, Kumar와 Steer(1995)는 자살하기 위한 바람, 상상 또는 계획은 실제 자살시도에 앞서는 과정으로 자살 충동은 자살시도의 중요한 예언 지표로 제시되어 왔기 때문에 확대해석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 범위에서 연구할 수 있다.

자살 예방학의 연구자인 Edwin Shneidman(Shneidman & Farbelow, 1968)은 자살현상유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연관된 다양한 다면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만하면서 생물학적 환원주의론에 대해 경계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가장 주여-을 받아들인 것이 우울이다(aumeister, 1990). Kumar와 Steer(1995)는 청소년 정신과 환자의 자-삼생각에 대한 연구에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우울과 절망감이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변수라고 하였고, Spann, Molock, Barksdale, Matlin과 Puri(2006)는 아프리카계 미국 청년에 대한 연구에서 우울이 무력감과 자살간의 하계ft 매개해주는 변수라고 하였다. 또한 Steinhausen과 Metzke(2004)는 자살생각을 지닌 전청소년기,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 및 초기 성인기 대조군 등의 성신사회적 기능 및 성신 병리어 기능을 연구한 결과 자살생각을 지는1 초기 성인기가 가장 비정상적인 정신사회적 기능과 정신 병리적 기능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충동성보다는 주로 우울증이 자살생각을 유발하고 충동성에 매개되지 않고도 자살생각을 많이 할수목

주요어 : 자살, 스트레스, 적응, 우울

1) 하서대학교 간호이·과 부교수(止신시자 E-mail: jnsohn(a=hansseo.ac.kr)  
뉴-고입: 2007년 2월, 21일 심사완료일: 2007년 8월 6일-

자살시도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삼을 중동적으로 견정하기보다는 오대 번미과 심리어인 갈V를 거쳐 고통과 좌적간을 회피하기 위해 마시마 수단으로 자산시.V.폴-한다고 하였다(Shin□Park, & Oh, 1991).

자작생각과 관변위 또 다른 위험요인은 스느레스이다. Baumeister(1990)i/ 자산충동에 회원과과성이 당극-석으로 스트레스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한다. 즉 기대상황과 현실상황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면 그로부터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그 스트레스가 몇 단세표 기쳐서 자안충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생활 스트레스가 자작생각과 반련이 있다^ 연구가 제시되고 있고(Hong & Jeon, 2005; Sim & Kim□2005)□여-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폴에 박히 타유적이고 수동적인 생활보 청년죄기의 판단과입이 시연되고, 대학에서산 대학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가되어 청년 후기의 발라과입인 심리리·사회적 가치과 수용, 자기 반색, 직업 선하 설혼 등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면서 적응상의 문제, 고민, 난안, 좌적늘유- 이겨내}? 인내이과 경취을 V?요보 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경제쉬 어려우므로 청년신입플이 증가하여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증되고 있다.

그 외에 자살생각과 스트레스나 우울을 매세해주는 요인으 立\_ 대처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대처란 개인의 수용능력유- 위험하는 것으로 평가되卜 내적, 외적 요구는-g- 나무려는 모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을 매세하 는 핵심 기제(Lazarus & Folkman, 1984) 로 스느레스가 단독으로 심각한 견과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새인이 스트레스포지가하고 반응하는 방법에 따라 :L 영향이 Yh□진다(Horesh□ et al., 1996). Lazarus와 Folkman(1984)의 내처의 유형은 문제해실-유 하적0보 의사길정 하거나 식십적인 행동료- 취하느- 문제 중심 대처와 스트레스 상황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성서 寒 나무거나 우I화 시키소?데 중쉬을 두는 성서 중순J 대처모 나누었고, \_와 Cohen(1986)이0- 스트레스 사건으로부터 기리물 두마:- 회피 디1처양시과 /, 스레스 사건과 관련된 누제규 회히-시 않고 해결해 나기-려느 쉬근 대처양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존의 이론들을 포발하여 Amirkhan(1990)d 상세해결 중심, 회피 중심,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의 유형으로 분류하 그, , 있다. 자살시도 대상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스느레□ 사건의 부담간을 경감시키려는 최소화와 삶은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하며, 주로 비난, 억제 및 대처와 같은 대처양식속 나타낸다고 하였다 《Horesh ct. al., 1996). You와 Kwon(1997)은 적극동행적 내처는 미우움 집단에서 높았고, 회피적 대처방식은 우울 집단에서 높세 나타났고, 우의 예측더을 보기 위한 회귀분석 한 설과에서도 생활 스트레스와 회피며 대시의 상호사용이 중요한 변\*?!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살, . \_ 자신이 직면한 문제나 상황에 대해 역기능적 대응전략 중 하나라

고 하였다(Kim, 2005}. 스느레스가 반생했을 때 개인 내에 진-제하고 있는 취약성 요인이 촉발되어 우울이 발생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적전한 대처방식을 지니고 있다면 적응적인 상태복 유지함 수 있다(You & Kwon, 1997).

200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생명존중문화 소성과 생애 주시변 자살예방 5개년 예방 대책속 정책으로 제아하고 있음-정도로 자산은 꼭가의 중요한 정신보건 문제이나(Ministry of Health Welfare, 2005). 하지만 국내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대상자가 주로 청소년이나 노인에 국하여 되어 있어(Hong & Jeon, 2005; Jang & Kim, 2005; Kim 2005; Sim, & Kim, 2005) 삼세적인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예방책운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진행된 연구가 주노 자살과 우울(Jang 及 Kim, 2005; Shin. Park, OH□& Kim, 1990, Shin et al., 1991), 스트레스(Jang & Kim, 2005) 양 새□?요비과 몇 가지 변수능 간의 위린 비교모 통합적인 쉬근에 이시-지 뜻하고 있고 자살생각과 과련 변수능에 대한 연구 너 예측연구(H이化 & Jeon, 2005□ Kim, 2005)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유 통해 자신·생각의 위험규과 비위험군의 각 집단 간을 최대한 분리시킨 수 있;- 판별 학수가 무엇이며, 판별 함수득 작 설명하는 판별 변수물 과악하고, 그 변수가 각 집난을 었마나 예측할 수 있는 지tt 과악함으로써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父 성인초기 대상자등인 대학생들의 자살 예방 정책 및 시스템 구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L? 대학생의 사삼생가 위험군과 비위험군을 구분하고, 사산■생각 위험군과 비위험군을 판?I하는 변수와 변수의 영향벼유 확인하기 위한 서습적 상관관계 연구이나

### 연구 대상자 선정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대상은 충남의 H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육 선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사 373명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고, 그 중 부적절한 응나을 한 10명을 제외하고 총 363명이다.

- 만 18세 이상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 논 연구의 꼭-직육 이해하고, 착여ft 것을 동의한 자
- 성신과좌 병비이 없!/? 자

연구 도구

• 생활 스트레스

생활 스트레스 척도는 Chon, Kim과 Yi(2000)의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교수, 가족, 이성, 친구와의 관계와 관련된 대인관계 스트레스 4개 영역, 가치관, 학업, 상래, 경제 등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4영역 등 총 8개 하부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척도는 50문항의 3점 척도(0-2)로 구성되었고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사건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고안되어 식수가 높을수록 경험한 생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노구 개발 시 신뢰도는 장래진로 Cronbach's  $\alpha = .81$  이성과의 관계 Cronbach's  $\alpha = .88$ , 경제 문제 Cronbach's  $\alpha = .85$ , 가족과의 관계 Cronbach's  $\alpha = .85$  친구와의 관계 Cronbach's  $\alpha = .77$ , 교수와의 관계 Cronbach's  $\alpha = .83$ , 가치관 문제 Cronbach's  $\alpha = .79$ , 학업문제 Cronbach's  $\alpha = .71$ 이었다(Chae, Kim, & Lee, 2000).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장래진로 Cronbach's  $\alpha = .87$ , 이성과의 관계 Cronbach's  $\alpha = .84$ , 경제 문제 Cronbach's  $\alpha = .88$ , 가족과의 관계 Cronbach's  $\alpha = .84$ , 하구와의 관계 Cronbach's  $\alpha = .86$ , 교수와의 관계 Cronbach's  $\alpha = .86$ , 가치관 문제 Cronbach's  $\alpha = .84$ , 학업문제 Cronbach's  $\alpha = .77$ 로 나타났다.

• 스트레스 대처전략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개인의 대처 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Amir Khan(1990)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Opening Strategy Indicator: CSI) 한국문화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타당도를 검토한 Shin(2002)의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CKCS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사회적 지지 추구, 문제 중심 대처, 회피 중심 대처 등의 하부영역으로 3점 척도(1-3)의 총 33문항으로 되어있다. 위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 사회적 지지추구 Cronbach's  $\alpha = .90$ , 문제 중심 대처 Cronbach's  $\alpha = .88$ , 회피 중심 대처 Cronbach's  $\alpha = .6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도 전체 Cronbach's  $\alpha = .85$ , 사회적 지지 추구 Cronbach's  $\alpha = .85$ , 문제 중심 대처 Cronbach's  $\alpha = .86$ , 회피 중심 대처 Cronbach's  $\alpha = .80$ 로 나타났다.

• 우울

우울은 CES-D(Radloff, 1977)를 Cho와 Kim(1993)이 타당성 검토한 한국판 CES-D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4점 척도의 20개 문항으로 지난 1주 동안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느끼고 행동한 성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Cho와 Kim(199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 test-retest = .68 이었고, 임상환자군의 절단점은 25점, 지역사회구의 신단점은 에민도 95%.

가음성률 5%, 양성률 25%내외로 하였을 경우에 21점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0$ 이다.

•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Beck, Kovacs와 Weissman(1979)이 개발한 SSI(Scale for Suicidal Ideation)를 Park와 Shin(1990)이 자가 보고형 진문지로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3점 척도의 총 19문항으로 총점 0-새점으로 16점 이상의 경우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고, 정상 성인의 평균치는 3.97, 우울증 집단의 평균치는 11.23으로 보고되어 있다(Shin, 1993). 원 도구의 Cronbach's  $\alpha = .92$ ,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이었으며 연구자로부터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교육 받은 7명의 연구보조자에 의해 구조화된 진문지플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보조자들은 자료수집에 앞서 먼저 연구목적과 취지를 언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 후 회수하였다. 총 400부경- 배부하여 37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불충분한 응답을 한 10부를 제외하 363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정-하였다.
- 연구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 연구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내적인관성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로 분석하였다.
- 제 변수유 간의 상관관계수 >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생활 스트레스, 대처방법 및 우울이 자살생각을 판별해 주는 정도와 유의한 판별요인의 확인은 판별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독성은 <Table 1> 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18세에서 29세의 범위로 평균연령

은 20.65 세였다.

대상자의 전공은 보건학부가 21명(39%)로 가장 많았고, 인문사회학부 100명(27.8%), 항공-학부 23명(6.4%), 공학부 21명(5.8%), 체능계 33명(9.2%), 이학부 32명(8.9%), 예속학부 30명(8.3%)의 순이었다. 학년은 1학년 146명(40.7%), 2학년 124명(34.5%), 3학년 53명(14.5%), 4학년 37명(10.3%)의 순이었다. 종교수는 기독교가 110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없는 경우 106명(29.2%), 불교 61명(19.2%), 천주교 54명(15.0%), 기타 11명(13.1%)의 순이었다. 경제적 상태는 '중'이 278명(77.7%)으로 가장 많았고, '하' 43명(12.0%), '상' 37명(10.3%)의 순이었다. 현재 사 [ - 곳' . , 사취가 148명(41.0%)로 가장 많았고, 동학 132명(36.6%), 기숙사 58명(16.1%), 하숙 11명(3.0%). 기타 5명(J.4M 친척집 4명(1.3%)의 순이었다. 려공에

대한 만족도에서 '보통이다'가 129명(35.7%)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 한다' 124명(34.3%), '매우 만족 한다' 50명(13.9%), '만족하지 않는다' 32명(8.9%),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6명(7.2%)의 순이었다. 최근 성적은 '중'이 218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상' 98명(27.0%), '하' 45명(12.5%)의 순이었다.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자산생각은 각각의 생활 스트레스와 대처전략 중 회피중심 접근전략 및 우용과 1% 유의 수준에서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내었다(사 able 2>.

가족과의 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r = .354, p = .000), 장래문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r = .396, p = .000), 가치관 문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r = .419, p = .000), 학업 문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r = .300, p = .000), 친Y와의 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r = .304, p = .000), 경제 문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r = .331, p = .000), 이성과의 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r = .170, p = .000), 교사와의 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r = .279, p = .000), 대처 전략 중 회피 중심 대처전략이 높을수록(r = .349, p = .000), 우용함수(r = .536, p = .000) 자산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자살생각 위험군의 주요 판별요인

대학생의 자살생각 위험군의 주요 판별요인 파악하기 위해 판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Shin(1990)은 SSI 16점 이상을 자살생각 위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신- 연구 대상자들은 자살생각 위험 집단 36명(9.9%)로 비위위 집단 326명(90.1%)으로 구분되어 판별 분석에 포함되었다. 판별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통계적 가정유 반각하기 위해 가장 작은 귀단의 사례수가 최소한 예하변수의 수보다 많아야 하구?대. 본 연구에서 가장 사례수가 작은 집단이 36명.0.보 예측변수 5보다 크11보 이 조건-2: 충족하였다. 또한 판별 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공분산 행렬이 동인하다는 가정 하에 성위된다. 공분산 행렬의 동인성에 대해 영가선을 검정하기 위해 호분산 행렬의 동일성 리정-유 Box 검정을 실시한 결과 M=24.36, p = .082 > 0.05로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상분야행렬이 동인하여 판별 분석이 가능하였다.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에서는 Wilks 람나와 F통계량으로 제시되어 있다<Table 3>. F통계량 값이 클수록 검체 분산의 미육이 높으므로 판별력이 호아지세 민나. 5개의 변수 중 총 스트레스, 회피 중심 대처전략, 우용의 F통계량 값이 크고,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총 스트레스 빈도 회피 중심 대처 전략, 우용의 집단 평균의 차이는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63

Variables	Categories	N(%)	Mean
Age			20-65(18.9)
Sex	Male	144(40.3)	
	Female	213(59.7)	
Major	Liberal arts & social science	100(27.8)	
	Engineering	21(5.8)	
	Aeronautical engineering	23(6.4)	
	Arts	30(8.3)	
	Health science	121(33.6)	
	Physical fitness	33(9.2)	
	Sciences	32(8.9)	
Grade	Freshmen	146(40.7)	
	Sophomore	124(34.5)	
	Junior	53(14.5)	
	Senior	37(10.3)	
Religion	Protestant	119(33.1)	
	Catholic	54(15.0)	
	Buddhism	61(19.2)	
	Other	11(3.1)	
	None	106(29.2)	
Economic status	Upper	37(10.3)	
	Middle	278(77.7)	
	Lower	43(12.0)	
Living	Home with family	132(36.6)	
	Dormitory	58(16.1)	
	Home alone	148(41.0)	
	Boarding	11(3.0)	
	Relative's home	5(1.4)	
	Other	7(1.9)	
Satisfaction of major	Never Satisfied	26(7.2)	
	No satisfied	32(8.9)	
	Average	129(35.7)	
	Satisfied	124(34.3)	
	Very satisfied	50(13.9)	
Recent Grade	Upper	98(27.1)	
	Middle	218(60.4)	
	Lower	45(12.5)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s

	X11	X12	X13	X14	X15	X16	X17	X18	X19	X2	X3	X4	X5
X11	.402***												
X12	.545***	.627***											
X13	.403***	.524***	.546***										
X14	.592***	.289***	.435***	.350***									
X15	.539***	.522***	.581***	.452***	.388***								
X16	.418***	.277***	.288***	.241***	.507***	.366***							
X17	.568***	.426***	.561***	.421***	.634***	.461***	.409***						
X18	.761***	.722***	.806***	.689***	.697***	.755***	.590***	.765***					
X19	.013	.020	-.019	.081	-.146**	.043	-.046	-.073	-.018				
X2	.047	-.019	-.009	.097	-.065	-.008	.017	.009	.022	.499***			
X3	.322***	.329***	.392***	.353***	.390	.277***	.159**	.301***	.431***	.065	.044		
X4	.443***	.460***	.499***	.308***	.448***	.439***	.239***	.401***	.567***	-.099	-.179**	.435***	
X5	.354***	.396***	.419***	.300***	.304***	.331***	.170**	.279***	.454***	-.029	-.095	.349***	.536***

Life stress sub categories: Xu: family relationship, X1: future problem, Xu2: value problem, Xu3: studies problem  
 Xi1: friends relationship, Xi2: economic problem, Xi3: boy or girl friends relationship, Xi4: professor relationship  
 Xi5: Total life stress, X2: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X3: Problem solving coping, X4: Avoidance coping, X5: Depression  
 Yi: Suicidal ideation  
 \*\*p<.01, \*\*\*p<.001

그러나 시·회적 지지 추구 대처전략과 문제 해결 중심 대처전략은 집단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est of Homogeneity of between group

Predictors	Wilks' Lambda	F	P
Total life stress	.93	25.10	.00
Social support	1.00	.14	.71
Problem solving	1.00	.55	.46
Avoidance	.95	18.64	.00
CES-D	.88	48.21	.00

정준 상관은 판별함수의 판별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0.36P로 판별능력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Wilk의 람다 값은 작을수록 판별함수의 선별력이 높아지는데 본 연구에서 1.87로 나타나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함수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9, 85) = 9.85, p = .00$  판별함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판별함수의 계수표 표준화시켜 함수로 나타내면  $D = .21X_1 + .17X_2 - .05X_3 + .21X_4 + .77X_5 (X_1$  : 총 생활 스트레스 빈도  $X_2$  : 사회적 지지대처,  $x_3$  : 문제해결 중심 대처,  $x_4$  : 회피중심 대처,  $x_5$  : 우울)이며, 표준 정준 계수는 판별변수의 상대적 중요도표 나타내는 것으로 계수의 절대 값이 클수록 비교하면 우울 변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총 생활 스트레스와 회피 중심 대처 대처전략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Table 5>. 정준 구조계수는 판별변수와 판별함수와의 상관계

수를 사용하여 판별변수가 판별함수에 얼마나 밀접하게 선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표시하는 것으로 절대 값이 1에 가까우면 그 판별함수는 대응하는 판별함수와 거의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우울의 계수가 .95, 총 생활 스트레스의 계수는 .68, 회피 중심적 대처 전략의 계수는 .59의 순으로 나타나 우울변수가 판별함수와 거의 같은 정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Table 5>.

<Table 5> Standardized canonical coefficient & canonical structure coefficient

Predictors	Standardized canonical coefficient	Canonical structure coefficient
Group	L	1
Total life stress	.21	.68
Social support seeking	.17	.05
Problem solving	-.08	-.10
Avoidance	.21	.59
CES-D	.77	.95

자살생각 위험 집단과 비위험 집단을 종속 변수로 하고, 총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 문제 해결 중심 대처, 회피 중심 대처, 우울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판별 수준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정준 상관계수는 .36으로 위험 집단의 판별력은 329명 중 239명이 판별되어 판별 거중물은 77.8%, 비위험 집단의 판별력은 36명 중 28명이 판별되어 판별 적중률은

<Table 4>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Eigen Valu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Chi Square	df	P
1	.15	.36	.87	49.85	5	.00

73.3%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판별 적중률은 73.8%로 나타났다. 전체 판별 적중률은 여기서 판별 적중률은 회귀분석의 적합도를 나타내} :- 기여율(R<sup>2</sup>)의 개념과 비문하여 판별식이 관측대상을 얼마나 라 판별하는 가족 나타내는 정도로 본 연구결과 판별 적중율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6>.

<Table 6> Classification matrix for risk group discriminant analysis

Group	N(%)	Predicted group	
		Non risk group	Risk group
Non risk group	326(90.1)	239(733)	87(26.9)
Risk group	36(9.9)	8(22.2)	28(77.8)
Hit ratio	267(73.8)	239(73.8)	28(77.8)

논 의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의 평균은 5.09점으로 간은 대학생운 대상으로 한 결과는- 없으나, 청소년유 대상<sup>0</sup>-로 한 연구결과 남학생의 평균 10.60, 여학생의 평균 12.85(Shin, Park, & Oh, 1991)보다 낮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 연구결과 5.81 (Jang & Kim, 2005)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자살생각에서 10대와 70대 이상의 누 연령층에서 자살생각 경향특이 높은 'U'자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 《Seo, 2003》-3-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살생각에 대한 연령별 상대적인 수준은 대학생 그룹이 낮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자살생각을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변수는 우울, 총 생활 스트레스 바도, 회피 중심적 대처전략 등으로 특히 우울이 다유 변수에 비해 영향력이 H개 나타났다. 이산-우울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전체모형의 18.8%를 설명하고, 가장 예에 높은 변수이며(Hong & Jeon, 2005) □ 우울장애가 자살자의 심리부검 3과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과 (Cheng, Cheng, & Cheng, 2000)t? 지지하고 있다. 이는 여어 가지 ?b? 상황에서 학리치 해현책옥 찾지 못하고 심리적 부적응 상태인 우울운 성취하면서 처한 헌신에서 노피하려는 수단으로 자살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생다된다. 하지만 Maris(2000)□? 우울증 환자의 평생 사살률은 15%이고 이-;> 입원 병동에 있-? 우울증 환자의 향후 35바50년에 거친 평생 유병률에 의한 자살확률일 뿐 연간 자살 유병률로 하면 1%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통제적 확대 해서存 시적한 바 있다. De Lco(2002)SI 우於증이 자살자독이 사+!하기 식전에 보일 수 있는 정서상태일 수 있지만 사竹자의 심리사회적 요인 .유 도외시할 수 없나녀 사삼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하 부분야에서의 접나이 필수여이고, 사삼예방을 위해서는 L- 문제 해결 능력 증진 및 사회적 지지 양의 효과에 대해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타다

자살생각의 적수가 위험 집단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족 스트레스, 친구와의 관계 스트레스, 장애 스트레스, 가시관 A드레스, 학업 스트레스, 경제문제 스트레스 및 총 생활 스트레스가 비위험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연구 경과 생활 스!!레스 경험이 자살생각과 유의하 성적 상관이 있고,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생활 스트레스가 독립^여운 보 자살생각을 증가시키} ? 및, -<sup>0</sup>로 나타난 결과(Sim, & Kim, 2005) 및 생활 스트레스 중 동료, 친구 영역의 스트레스가 지-실-생각에 영향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Hong & Jeon □2005X 또한 Zhang, Conwell, Zhou와 Jiang (2004)7? 중국에서 자살을 완결한 대상자의 심리부검을 심시 하 결과 강머하 예측요이오소 부정적인 생활사건 능이 포함 되었다-;? 리과와도 갑은 맥락으로 #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처전략 중 사회어 지지 추구, 문제 해결 중심 대처?1략은 자살생각을 판별해 주시 않으나 회피 중심 적 대처전략이 자살생각을 ¥1■벌학 수 있+ ? 요인으로도 나타났다. 이, :? 대처전략 중 긍정적 대처는 자살 위험 집단이나 비 위험 집단이 변 차이가 없시마, 자살 위험 집단이 부정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녀, 이] :- 본 연구와 실-은 연령등을 대상으로 하 연구는 아니지만 청소년의 자심■시 노자의 대응전략이 부정적일수록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다+ :• 연구기때Kim□2005> 나 부정적 대처방식은 자삼■위험과 상관관계가 있고, 특히 자살위험 대상자유은 자신의 义제를 타인의 탓.<sup>0</sup>-로 돌비그I□문제갈 회피하는 대처방식유- 주로 사용한다는 신과(Horesh et al" 1996)H 지지하고 있다. 또한 자살은 오별 번민과 쉬리 직인 같늬음 거저 고등과 좌절감을 회피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자살•시도불 하기 때문이라는 설병(Shin □ Park, & Oh, 1991) ?로 해석할 수 있다. <, 평소 대처전략 중 회피 중심서인 대처유 많이 해운 사람들이 시삭적인 /난.레人- 상황 하에서 건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생각옥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결과는 이-, ■ 리카계 미국인과 라던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 서방식이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표 나타내 시 않는 신과(O'Donnell, O'Donnell, Ward law, & Stueve, 2004) 와!':? 다존 및.<sup>0</sup>보 나타났다, 이습:- 미국세 소수민족의 성우 생존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서으로 대처하시 때눈인 것으로 설명히-였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V 차이가 있겠시마- 사살이나 생존에 대해 신념의 차이를 .가려 하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및 & -<sup>0</sup>로 생각된다.

자竹생각에 대한 판별 시-석을 한 결과 자살생가 위험집단의 판별 비중머은 77.8% □ 미위험 집단의 판귀 적중률은 73.3%로 나타났다. 즉 판별시이 관측대상을 73.8% 정도도 산

판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직위 비교는 어렵지만 Kim(2005)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시도자에 대한 판별에서 부모 양육방식, 정신신체 증상, 대응방식 등의 예측요인이 자살 시도자의 66%, 자살 비시도자의 72.9%를 판별한 연구결과보다 판별 적중률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우울, 총 생활 스트레스, 회피 중심적 대처 전략 등의 변수가 자살생각 위험집단육 구분하는데 중요한 판별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자살 생각 위험군을 판별할 수 있는 변수는 우울, 총 생활 스트레스, 회피 중심적 대처전략 등. 나타나 초기 성인기에 있는 대상자 중 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도구 구조화하는데 이 변수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기 성인기의 자살생각 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시에 우울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프로그램, 즉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 즉 우울한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 우울한 기분의 초기 위험 징후 파악하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기, 삼아야 할 이유 찾기 등의 방법들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 분석 등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중재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이완술과 같은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개인적인 대처기술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하는 것과 같은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 심리적 집안뿐만 아니라 자살사고의 차단과 같은 정책적인 배려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에서는 미국 상원의원인 Garret Smith의 아들인 게렛이 자살로 목숨을 잃게 된 후에 자살예방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높이 세넷 리 스미스 기념법(Garrett Lee Smith Memorial Act)이 2004년도에 부시대통령의 인준을 받게 되어 대학생의 보호 및 상담에 관한 법복(Campus care and Counseling Act) 양이 2005년 7월 8일 통과되었다. 이 법안을 통해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다양한 자살예방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신 건강 교육과 자살문제에 대한 인시교육 활동은 비롯한 스크리닝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자살 위기자의 가족을 위한 자살예방 관련 교육 자료도 마련하고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급하도록 하였고, 동시에 자살 징후와 경고 신호에 대한 인시교육, 치료 평가, 의뢰 등 모든 가능한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이 리소스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Public Law, 2004). 우리나라의 대학생이나 이와 같은 정책적 법안이 마련되어 그 기틀 내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기여할 수 있도록 초기 성인기 대상자들에 대한 자살 인시교육 및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의 위험군과 비위험군의 각 진단 간을 최대한 분리시킬 수 있는 판별함수가 무엇이며, 판별함수를 작 설명하는 판별변수를 파악하고, 그 변수들이 각 진단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자살예방 정책 및 시스템 구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충남의 H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서 편의 표출한 후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한 학생에게 설문지 조사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었고, 총 분석 연구대상자는 총 363명이었다. 연구도구는 Chon 등(2000)의 개정판-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Amirkhan(1990)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를 한국 문화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타당도물 검토한 Shin(2002)의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K-CSI)와 CES-D(Radloff, 1977) R Cho와 Kim(W93)이 타당성 검토를 하 한국판 CES-L, Beck, Kovacs 와 Weissman(1979) 이 개발한 SS [(Scale for Suicidal klation)을 Park 와 Shin(1990)이 자가보고형 질자지로 개발한 도구부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다.

- 자살생각(SSD)은 총점 평균 5.09로 나타났다. 총점 16점 이상의 자살생각 비위험 집단은 326명(90.1%)이었고, 자살생각 위험 집단은 36명(9.9%)이었다
- 자살생각은 모든 생활 스트레스와 대처전략 중 회피중심적 대처 전략, 및 우울과 1% 유의 수준에서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판별함수의 계수 표준화시킨 표준화된 정준 판별 함수는  $D = .21X_1 + .17X_2 - .08X_3 + .21X_4 + .77X_5$  (X: 총 생활 스트레스 빈도, X<sub>2</sub>: 사회적 지지대처, X<sub>3</sub>: 문제 해결 중심 대처, X<sub>4</sub>: 회피 중심 대처, X<sub>5</sub>: 우울)이며, 변수의 절대 값 사기국-비교하면 우울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총 생활 스트레스와 회피 중심적 대처전략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 자살생각 위험 집단의 판별 적중률은 77.8%, 비위험 집단의 판별 적중률은 73.3%로 나타났고, 전체의 판별 적중률은 73.8%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자살생각 위험군을 판별할 수 있는 변수는 우울, 총 생활 스트레스, 회피 중심적 대처전략 등으로 나타나 초기 성인기에 있는 대상자 중 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도구 구조화하는데 이 변수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험 집단의 판별능력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은 기타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하 기초보 초기 성인기의 자살 생각 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시에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메타 분석 후 효과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의 도입 및 개발이 필요하고, 이완과 같은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건설적인 대처기술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살예방은 우선 아가에서 정책적인 법안 마련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므로 미국과 같이 대학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자살-예방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살예방 시스템은 사야과 관련된 다양한 위인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접근 수 자什 수단의 차단과 Th 구조적인 화경적인 문세의 차단, 다양한 치료 자살문제에 대한 인지교육 및 정책적 법안화 등이 포함되어야 함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보 다음과 같이 세언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 및 성격하성과 살은 요인같은 포함한 예許연구 및 직·간접적 효과록 파악하 수 있I 구조모형 연rtt 제언한다.
- 자살이나 생존에 대한 신념의 차이를 고려한 추후 연구유-세언한다.
-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선체 이구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연구물 제언한다.

## References

Amirkhan, J. 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CSI). *J Pers Soc Psychol*, 59, 1066-1075.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 Review*, 97, 90-113.

Cheng, A. Cheng, T., & Cheng, C. (2000). Psychosocial and psychiatric risk factors for suicide. Case-control psychological autopsy study. *Br J Psychiatry*, 177, 360-365.

Cho, M. J., & Kim, K. H. (1993).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V major depressio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2(3), 381-399.

Chon, K. K., Kim, K. H., & Yi, J. S. (2000).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 Health Psycho*, 5(2), 316-335.

Chung, S. H., Kim, J. H., & Nam, Y. Y. (2006, 7). *Socioeconomic cost in suicide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Korean Psychosocial medicine, Seoul, Korea.

De Leo, D. (2002). Why are we not getting any closer to preventing suicide? *Br J Psychiatry*, 181, 372-374.

Hong, Y. S., & Jeon, S. Y. (2005).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for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19, 125-149.

Horesh, N., Rolnick, T., Lancu, I., Dannon, P., Lepkifker, E.,

Apter, A., & Kotler M., (1996). Coping styles and suicide risk. *Acta Psychiatr Scand*, 93(6), 489-493.

Jang, M. H., & Kim, Y. H. (2005). The relationship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J Korean Acad Psych Menial Health Nurs*, 13(1), 33-42.

Kim, H. S. (2005). Predictors of suicide attempts in the Korean adolescent populatio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1(1), 34-42.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2006). *Cause of death and sex: death rates by sex and age from 103 causes according to the condensed list of general mortal Uy in 2005*.

Kumar, G., & Steer, R. (1995). Psychosocial correlation of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Suicide life Threat behav*, 25(3), 110-119.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 coping*. N. Y.: Springer.

Maris, R. W. (2000). *Comprehensive textbook of suicidology*. N. Y.: The Guilford Press.

Ministry of Health Welfare (2005).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in future 5 years*.

O'Donnell, L., O'Neil, C., Wardlaw, D. M., & Siu, A. (2004). Risk and resiliency factors influencing suicidality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and Latino youth. *Am J Community Psychol*, 33(1/2), 37-49.

Park, K. B., & Shin, M. S. (1990). College goal and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Clin Psychol*, 9(1), 20-32.

Public Law 108-355 (2004). *Regislative History: Garrett Lee Memorial Act. Congressional Record*, 150.

Roth, S., & Cohen, L. J. (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 Psychol*, 4, 813-819.

Sco, D. W. (2003, Oct). *Epidemiology of suicide and role of mental health center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Community Mental Health Workshop, Seoul, Korea.

Shin, H. J. (2002). *A validation study of coping strategy indicator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hin, M. S., Park, K. B., Oh, K. J., & Kim, Z. S. (1990). A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Clin Psychol*, 9(1), 1-19.

Shin, M. S., Park, K. B., & Oh, K. J. (1991).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impulsivity 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Korean J Clin Psychol*, 10(1), 286-297.

Shneidman, E. S., & Farberow, N. L. (1968). *The suicide prevention center of Los Angeles*, In H. P. Rieker (Eds.), *Suicidal Behaviors*, 367-380. London; Churchill LTD.

Sim, M. Y., & Kim, K. H. (2005).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s of Korean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 of sex and developmental period. *The Korean J Health Psychol*, 13(3), 313-325.

Spann, M., Moock, S., Barksdale, C., Matlin, S., & Puri, R. (2006). Suicide and African American teenagers: risk factors and coping mechanism. *Suicide Life Threat Behav*



- 36(5). 553-568.
- Steinhausen, H. C., & Winkler Metzke, C. W. (2004). The impact of suicidal ideation in preadolescence,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on psychosocial functioning and psychopathology in young adulthood.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270(6), 438-445.
- You, S. E., & Kwon, J. H. (1997).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social support, stress, and coping style on depression in the middle - aged woman. *Korean J Clin Psychol*, 16(2), 67-84.
- Zhang, J., Conwell, Y., Zhou, L., & Jiang, C. (2004). Culture, risk factors and suicide in rural China: a psychological autopsy case control stud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10(6), 430-437.

## Discriminating Power of Suicidal Ideation by Life Stress, Coping Strategy,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Sohn, Jung Nam<sup>1)</sup>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isk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and to identify the discriminating power of their suicidal ideation by total life stress,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Method:** The data was collected by self - reported questionnaires from 363 in college students. Data analysis was done with the SPSS 10.0 pc 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 The subjects were distributed in two groups of suicidal ideation: 326 subjects(90.1%) in non-risk group, 36 subjects(9.9%) in high risk group. Total life stress, Avoidance coping strategy, and depression were significant discriminating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Total life stress, Avoidance coping strategy, and depression correctly discriminated 73.8% of the sample. **Conclusion:** Organization of our knowledge of risk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provides opportunities to develop life - saving preventive strategies. Life - saving preventive program in young adult will be needed to include stress management skill, stress coping skill and education in depression recognition.

Key words : Suicide, Stress, Adaptation, Depress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hn, Jung Nam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360 Daegokri Haemimyeon, Seosan city, Chungcheongnam-Do 356-706, Korea  
Tel: 82-41-660-1072 E-mail: Jnsohn@hanseo.ac.kr